이기는 삶

금반언(禁反言)의 원칙(原則)

금반언(禁反言)의 원칙(原則)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민법 제2조 1항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原則)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 원칙은 로마법에서 기원하였으며 특히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법의 영역에서 채권행사와 권리남용의 법리와 공통된 점이 많이 있다. 즉 권리의 행사가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權利濫用)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로부터 무지갯빛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오히려 독이 되어 탈락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또한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공약과 당선 후의 행적이 너무도 다른 사람도 있다.

'뒷간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다. 자신의 사정이 급할 때는 온갖 아양을 떨면서 굽실대지만 일단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에 힘주고 자신이 잘났다고 거드름을 피운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음 선거에서 낙선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요즘은 허세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다면 그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책임추궁을 당하여 대표직이나 장관직에서 하직하는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공동체에 속한 지도자는 자신의 뜻을 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볍게 던지는 말에 예기치 않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구이언(一口二言)이라 하였듯이 지도자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야 한다. 언행일치(言行一致)를 보이지 않는 지도자는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정작 본인은 행하지 않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다면 지도자의 위상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지휘계통의 명령체계가 혼선을 빚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조직이 사분오열(四分五裂) 분산(分散)되는 것이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를 신뢰하고 맡은 바 책임을 성실이 이행하게 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직에 헌신하게 된다. 지도자 또한 조직을 위하여 헌신하는 조직원을 신뢰하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함 속에서 풍성한 사랑이 자리 잡는 끈끈한 인격체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지도자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결정의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고 선입견에 의한 잘못된 판단으로 틀린 결정을 하는 수가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자신이 틀린 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밀어붙이는 지도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지도자이다. 틀린 줄 알았다면 고쳐나가면 된다. 체면이 깎이더라도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즉각 시정해 나가는 것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길이다. 그러한 지도자가 조직원들로부터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

금반언(禁反言)의 원칙(原則)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정신으로 지도자와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의 조직분위기가 형성되어 서로를 위한다면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지도자와 조직원이 합심하여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속담 속의 영생학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사과나무에는 반드시 사과가 열린다. 대추나무에는 반드시 대추가 열린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다. 구세주의 올바른 열매는 반드시 영생의 열매가 되어 세계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다. 인과법칙이다.

또한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도 잘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가장 큰 영양력을 준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 말은 통한다.

우리 승리제단의 가장 높은 영적 어른은 구세주이시다. 구세주께서는 영적 생명수를 아래로 흘려내보내신다. 그 맑은 영적 물을 온 세상 인류가 다 마시고 있다. 그 물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이다.

구세주께서는 34년 전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 마음이 영이요 영이 생명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또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물을 부어주시는 구세주는 생명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나 생명물을 마시게 된다.

구세주께서는 인류를 100살도 못살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정체를 낱낱이 알려주시고 죄 짓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율법을 선포하고 실천하게 하시어 영생대도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나'라는 의식이 죽을죄이며 사자귀신이다. '나'를 이기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하는 몸으로 거듭난다. 이것 역시 생명의 말씀이자 생명물이다.

승리제단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긴자 구세주님을 비방하면서 성도들은 착하고 좋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자식이 효자라면 자식을 가르친 부모가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으로 원시반본 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참 구세주가 있기에 우리들이 있는 이 속담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인류의 원래 모습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여! 의심은 이제 그만 버리고 어서 빨리 승리제단 구원 방주를 타시라! 그리하여 조상님들에게도 진정한 효도를 하는 자식, 진짜 맑은 아랫물이 되시라!*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루기

헷갈리는 우리말 모음⑤

매번 헷갈리는 것이 바로 맞춤법이다. 요즘에는 SNS나 메신저를 사용할 때 맞춤법 개념 없이 글을 쓰는 게 통례여서 안 그래도 잘 헷갈리는 맞춤법을 제대로 익히기가 여간 쉽지 않다.

다음 중에서 맞는 말을 골라 보자.

'우유예요/ 우유이에요/ 우유에요' 여기서 첫 번째 '우유예요'와 두 번째 '우유이에요'가 맞고 세 번째 '우유에요'가 틀린 말이다. 이 맞춤법을 절대 헷갈리지 않게 해 주는 간단한 팁은 바로 받침이 없으면 〈예요〉,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라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자.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예요/ 비타민에요' 여기서 첫 번째만 맞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틀린 표현이다. 또, 가장 헷갈리는 '것이에요/ 거예요/ 것이예요'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맞는 표현이지만 '것이예요'는 틀린 말이다.

단, 예외는 있다. 즉, '아니에요'인데 '아니'가 받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아니에요'로만 쓰고 '아니예요'는 틀린 말이 된다. 그리고 '아니에요'의 줄임말인 '안녕요'도 맞는 말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이름의 경우에는 받침이 없으면 똑같이 〈예요〉를 쓰고 받침이 있을 때는 〈이예요〉를 쓴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숙이예요(O)/ 지숙이에요(X)', '은지예요(O)/ 은지에요(X)'*

이승우 기자

외국인을 영어와 일어로 전도합시다

하늘에는 무엇이 살고 있나요?

What do you think of dwells in Heaven?

空には何が生きていますか?

•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국(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한다.

All mankind thinks that the invisible God is in Heaven.

人びとは目に見えない神は様が天国(空)におられると考えています.

• 그래서 하늘을 향해 밤낮으로 기도한다.

They pray toward Heaven day and night.

それで空に向かっていつも祈っています.

• 하지만 성경은 하늘에 사탄들이 살고 있다고 말한다.

But Heavens is the very house where Satan dwells(Ephesians 2:2, 6:12, Luke 10:18).

だが, 聖書は空にサタンが生きていると記されています.

•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사탄을 향하여 기도해 왔던 것이다.

Therefore, the whole of mankind have prayed to Satan for thousands of years.

したがってすべての人類は数千年の間サタンに向かって祈ってきたのです.

•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Now we must know what we are, what situation we are in and what we should be.

もう私たちは私たちがどんな存在なのか, どんな状態にいるのか, そしてどんな存在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を分か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묵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어낸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청이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종말 인류의 미래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자와 천국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

長生 건강한 삶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시중 서점 절찬 판매중

도서출판 해 • 인